

# 고전소설 신자료 〈牀下俠客傳〉 연구 \*

서 유 경 \*\*

1. 서론
2. 『금고기관』의 전래와 〈李汎公窮邸遇俠客〉의 번역 수용 현황
3. 〈牀下俠客傳〉의 번역 양상
  - 1) 새로운 서사 삽입을 통한 액자 틀 구성
  - 2) 3단계 반전 서사 내용 유지
  - 3) 부녀자에 대한 훈계 강조
4. 결론

## 1. 서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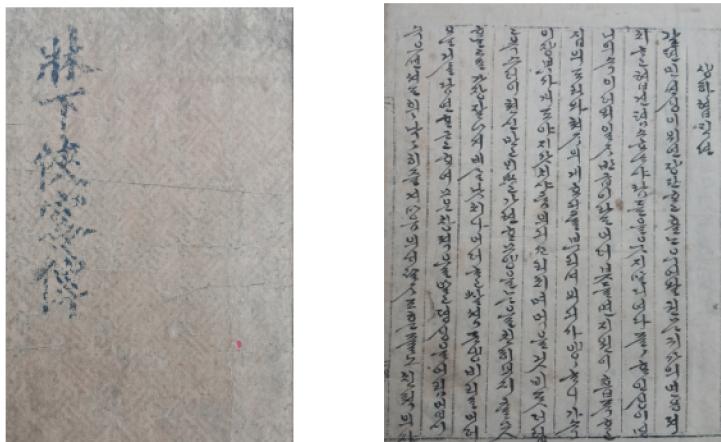
이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牀下俠客傳〉은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로 유일본이자 희귀본이라 할 수 있다. 〈牀下俠客傳〉이라는 작품명은 기존 고전소설 목록에 없는 것이어서 관심을 갖고 확인하게 된 것이 이 연구의 시작이다. 〈牀下俠客傳〉이 현재는 국립한글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지만, 그 전에는 조선의 23대 왕인 순조의 넷째 딸 덕온공주(1822~1844) 후손가에 보관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저동궁 할머니로 불린 덕온공주의 영손녀 윤백영(1888~1986) 여사 집안을 통해 국립한글박물관으로 옮겨오게 된 것이다. 윤백영 여사는 덕온공주가 윤의선(1823~1887)과 혼인하여 낳은 아들인 윤용구의 딸이다.

〈牀下俠客傳〉이 어떻게 창작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원 소장자를 확인하면서 추

\* 이 논문은 2016년도 서울시립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 서울시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측할 수 있었다. 〈牀下俠客傳〉은 궁활아버지라고 불린 윤용구가 윤백영이 25~26세 경 『今古奇觀』을 번역하여 준 것을 쓴 것이라 한다.<sup>1)</sup> 그런데 처음 이 자료를 확인하였을 때 『今古奇觀』 소재의 작품과 관련짓지 못했던 것은, 『今古奇觀』에는 〈牀下俠客傳〉이라는 작품명이 없기 때문이었다. 〈牀下俠客傳〉을 살펴본 결과 이 작품은 『금고기관』 소재 작품 중 〈李汎公窮邸遇俠客〉을 번역하면서 제목을 바꾸어 붙인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牀下俠客傳〉은 〈李汎公窮邸遇俠客〉을 단순히 그대로 옮긴 것이 아니라 번역자가 새로이 내용을 추가하고 서사를 변경한 부분이 있어 주목된다.



〈그림 1〉 국립한글박물관본 〈牀下俠客傳〉 표지와 첫 장

기존에 『금고기관』의 번역 양상을 검토한 연구 결과를 참조하여 볼 때, 『금고기관』의 한글 필사본으로는 낙선재본, 연세대본과 고대본 정도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李汎公窮邸遇俠客〉의 번역은 확인되지 않는 상황이다. 현재

1) 이는 국립한글박물관에 자료를 옮길 때 전해진 바이다. 정확한 상황을 확인할 길이 없어 추정을 해 본다면, 윤용구가 직접 번역하여 쓴 것을 책으로 만들었다는 의미이거나, 윤용구가 번역하여 준 것을 윤백영이 글로 써 책으로 만들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윤용구가 번역을 한 시점이든 필사본을 만든 시점이든 연대를 추정해 보면, 1913년 즈음임을 알 수 있다. 윤용구는 판서 벼슬까지 하였고, 시서에 뛰어났다고 한다.

상황으로 〈李汎公窮邸遇俠客〉의 한글 번역본은 1963년에 출판된 정음사본 『완역 금고기관』의 〈李汎公記<sup>2)</sup> 하나밖에 없는 형편이기에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필사본 〈牀下俠客傳〉은 일제 강점기 이전 시기 최초 번역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牀下俠客傳〉의 특성과 의의를 고구하되<sup>3)</sup> 〈李汎公記〉와<sup>4)</sup> 비교하여 우리 고전소설로서 〈牀下俠客傳〉이 지니는 의의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牀下俠客傳〉은 번역자가 그 작품명을 원전인 〈李汎公窮邸遇俠客〉과 달리하여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저본인 〈李汎公窮邸遇俠客〉을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서사 구조와 서술 등의 차원에서 변형을 시도하였다. 크게는 서두에 액자 역할을 하는 교술적 성격의 이야기를 추가하고, 세부적으로는 서술 등에서 약간의 변형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牀下俠客傳〉이 우리나라 마지막 왕가의 유산 중 하나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 흥미롭기도 하다.<sup>5)</sup> 〈牀下俠客傳〉이 지어진 상황이 전해지기에 그 창작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고, 원전인 중국소설과 대별되는 특성이 있어 번역본의 생성에 작용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牀下俠客傳〉을 〈李汎公窮邸遇俠客〉과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단순 번역의 차원을 넘어서는 독자적 의의가 도출되리라 본다.

2) 1963 『완역 금고기관』, 정음사, 171-205면.

3) 〈李汎公窮邸遇俠客〉의 현전 자료 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李汎公窮邸遇俠客〉에 대한 개별적 연구는 별로 보이지 않는다. 기존에 〈李汎公窮邸遇俠客〉이 다루어진 경우는 『금고기관』 번역 현황을 개관하는 연구나 신소설 연구, 이해조 연구의 맥락에서 단편적으로 언급된 정도이다(이경림, 2013 「근대 초기 『금고기관』의 수용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근대문학연구』 27, 239면).

4) 〈牀下俠客傳〉 생성 시기보다 정음사본이 늦기는 하지만, 동일한 국문본이며 원전에 가깝다고 판단되어 이 연구에서는 정음사본에 게재된 자료를 비교 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현전하는 자료로는 최초 번역본인 정음사본에서는 〈李汎公窮邸遇俠客〉의 제목을 〈李汎公記〉로 표기하고 있다.

5) 조선시대에 왕을 비롯한 왕가에서 중국의 소설을 수입하여 읽고 번역한 사례는 이미 논의된 바 있다(김수영, 2015 「효종의 〈삼국지연의〉 독서와 번역」 『국문학연구』 32, 67-88면).

## 2. 『금고기관』의 전래와 〈李汧公窮邸遇俠客〉의 번역 수용 현황

〈李汧公窮邸遇俠客〉이 실려 있는 『금고기관』은 중국에서 인기 있었던 화본소설집으로 일종의 소설모음집 혹은 선집이다. 『금고기관』은 이미 창작되어 읽히던 『三言』·『二拍』 가운데에서 40편만 골라 엮어서 만든 것으로 편집자는 포옹노인으로 알려져 있다. 『금고기관』의 간행 연대는 1632-1644년일 것으로 추정되는 데, 우리나라에 유입된 시기는 1762년 이전일 것으로 보인다.<sup>6)</sup> 『금고기관』은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다양한 방식으로 번역, 번안되고,<sup>7)</sup> 소설로 향유된 역사를 갖고 있다. 〈李汧公窮邸遇俠客〉은 『금고기관』의 40편 중 16번째 작품이다.

기왕의 논의들을 종합해 볼 때, 『금고기관』이 수입되어 우리나라에 소개된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sup>8)</sup> 이는 우리나라 문학에서 『금고기관』이 수용된 양상이라 할 수 있는데, 우선 『금고기관』이라는 책 제목을 그대로 하여 단편집으로 번역된 경우가 한 가지이고, 다음으로 『금고기관』에 수록된 각 편 중 일부가 선별적으로 번역된 경우가 다른 한 가지이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금고기관』의 원전에서 벗어나 전면적 번안이 이루어지거나, 각 편에 있는 일부 삽화가 수용되어 새로운 소설로 창작된 경우이다. 여기서 짚어 보아야 할 점은, 『금고기관』의 번역이라는 것을 표방한 단편집으로 간행된 경우에도 『금고기관』 소재 작품 전체가 아니라 몇 편만 선택되어 책으로 묶였다는 것과 대개는 개별 작품 단위로 선정되어 번역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6) 『금고기관』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시점을 근거로 한 추정이다(김영화, 2011 「한국·일본의 명대 백화단편소설 번역·번안 양상」,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2면; 이경림, 앞의 논문, 232면; 鄭榮豪 외, 2013 「중국 백화통속소설의 국내 유입과 수용: 『三言』·『二拍』·『一型』 및 『今古奇觀』을 중심으로」, 『중국인문과학』 54, 228면; 윤보경, 2017 「韓國近代時期 中國古典小說의 翻譯과 出版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64면).

7) 일찍이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에서부터 『금고기관』이 수입, 다수 번역되었음이 언급되었 다[김태준(박희병 교주), 1995 『중보 조선소설사』, 한길사, 98-100면; 손병국, 1992 『한국 고소설에 미친 명대 화본소설의 영향』,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증천부, 1995 『한국소설의 명대 화본소설 수용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등].

8) 이경림은 이에 대해 다시쓰기의 원천과 번역 혹은 번안의 모본으로서의 『금고기관』이 있다고 논의한 바 있다(이경림, 위의 논문, 227면).

시기 상 『금고기관』의 번역은 우리나라에 수입되었다고 추정되는 시점보다는 훨씬 오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李汧公窮邸遇俠客〉의 경우, 조선시대에 『금고기관』이 유입되기는 하였으나 조선시대 때 번역되어 출판 간행된 자료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1900년 이후 출간된 번역본만 존재하는 상황이다.

『금고기관』의 번역은 전체 작품을 오롯이 옮기는 차원의 번역보다는 40편 중 일부를 선정, 발췌하여 번역, 번안하는 방식이어서<sup>9)</sup> 편찬자나 독자의 의식, 취향에 부합하는 작품이 주로 선택되었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제목을 달리하거나 원전의 내용을 삭제, 생략한 경우들이 많았다. 특히 신소설, 신문연재 소설의 등장 이후에는 다른 소설을 창작하는 과정에서 바탕 자료가 되어 우리 문학에 흔히되는 방식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발견된 번역, 번안 자료로 볼 때 『금고기관』 전체를 한권의 책으로 번역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sup>10)</sup>

『금고기관』의 국문 번역본은 국문 필사본으로 낙선재본, 고려대학교본, 한국학중앙연구원본, 김동욱본 등이 있고, 신구서림에서 나온 활자본과 정음사본 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sup>11)</sup> 그런데 〈牀下俠客傳〉의 바탕이 된 〈李汧公窮邸遇俠客〉은 우리나라에 번역 혹은 번안된 경우가 단 한 차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그것도 1963년에 출판된 자료여서 근대 시기 이전에는 〈李汧公窮邸遇俠客〉이 번역된 경우는 없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1963년에 정음사에서 간행된 국문 번역본은 일본의 平凡社에서 1948년도에 출판된 『今古奇觀』을 다시 번역한 것으로<sup>12)</sup> 확인된 바 있다. 정음사본에 번역되어 있는 『今古奇觀』 수록 작품은 총 16편으로 〈李汧公窮邸遇俠客〉은 〈李汧公記〉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그런 의미에서 〈牀下俠客傳〉은 일제강점기 이전에 〈李汧公窮邸遇俠客〉이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국문 자료로서는 유일본이라 할 수 있다.

9) 이에 대해 참조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신동일, 1985 『韓國古典小說에 미친 明代短篇小說의 影響』,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59면; 김기향, 2011 「금고기관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3-66면 등.

10) 윤보경, 앞의 논문, 64면. 신동일의 정리에 의하면 『금고기관』에 실린 40편의 작품 중에 우리나라에 번역된 작품은 30편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신소설까지 포함하면 32편이다(신동일, 위의 논문, 58면).

11) 鄭榮豪 외, 앞의 논문, 235-240면; 김기향, 앞의 논문, 66-67면.

12) 신동일, 앞의 논문, 57면.

흥미로운 점은 〈李汎公窮邸遇俠客〉이 일제강점기 이전에는 국문으로 번역된 경우가 없음에도, 이해조의 신소설 〈枯木花〉에서 〈李汎公窮邸遇俠客〉의 삽화를 차용하고<sup>13)</sup> 있다는 것이다. 이는 한문에 조예가 깊었던 이해조가 국문 번역이 없어도 『금고기관』에 접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해조의 여러 작품들에서 『금고기관』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금고기관』의 영향이 고전소설 향유 시기 이후에도 지속되었음을 말해준다.<sup>14)</sup>

### 3. 〈牀下俠客傳〉의 번역 양상

#### 1) 새로운 서사 삽입을 통한 액자 틀 구성

〈牀下俠客傳〉은 〈李汎公窮邸遇俠客〉을<sup>15)</sup>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새로운 서술과 삽화를 추가하여 원래 작품과는 다른 구성을 보이고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牀下俠客傳〉의 서사를 주요 내용 중심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갈천 민 선생이 세상사를 한탄하다가 이웃집 여인들 이야기를 시작한다.
2. 당나라 현종 시절 장안에 방덕이라는 선비가 있었는데, 삼십이 넘도록 가난 하여 아내 패씨의 침선 방적으로 겨우 연명하며 산다.
3. 패씨의 구박에 집을 나왔다가 비를 만난 방덕은 운화사라는 절에 들어가 비를 피한다. 그러다 머리를 그리지 않은 황새 그림을 보고 방덕이 새의

13) 송민호, 2012 『동농 이해조 문학연구: 전대(前代)소설 전통의 계승과 신소설 창작의 사상적 배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양사사, 2013 「明代 話本小說이 新小說에 미친 영향」, 광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19면.

14) 이해조의 신소설 작품이 『금고기관』과 관련되는 양상과 근대 시기 고전소설의 번역에 대한 연구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최원식, 1986 『이해조 문학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박진영, 2011 『번역과 번안의 시대』, 소명출판; 배정상, 2012 『이해조 문학 연구: 근대 출판·인쇄 매체와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양사사, 위의 논문; 윤보경, 앞의 논문.

15) 이 글에서 〈牀下俠客傳〉과 비교한 〈李汎公窮邸遇俠客〉의 번역본은 정음사본 〈李汎公記〉이다.

머리를 그려 넣는다.

4. 절에서 나오는 방덕에게 한 사람이 와서 자신과 함께 가자고 하여 따라가 보니 강도들이었다. 그들은 방덕에게 자신들의 두목이 되지 않으면 살려 보내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고, 이에 방덕이 수락한다.
5. 방덕과 강도들은 왕원보의 집을 털려고 하였으나 미리 매복한 옥졸에게 잡혀 죽을 쳐지가 된다.
6. 이면이 죽게 된 방덕의 인물과 학식을 보고 왕대를 통해 살려준다. 이면은 이 일로 인하여 낙향하게 된다.
7. 고향에 있던 이면이 왕대와 함께 안고경을 찾아 가다가 태수가 된 방덕을 만난다. 방덕이 이면을 극진히 불잡아 이면 일행은 방덕의 집에 머무르게 된다. 방덕이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이면에게 선물을 하려 하는데 그 품목과 금전의 정도를 두고 아내와 다투게 된다. 그러다가 방덕은 아내의 말에 설득되고 결국은 방덕 부부가 함께 이면을 죽이려는 공모를 하게 된다.
8. 우연히 방덕 부부의 계략을 들은 노신이 이면과 왕대에게 이를 알려 다함께 도망을 간다.
9. 이면을 죽일 방도를 찾던 방덕은 어떤 협객을 알게 되어 그에게 거짓 사연을 말하고 이면을 죽이도록 부탁한다.
10. 도망가던 이면 일행이 여관에서 지난 일을 이야기하는 것을 침대 밑에 숨어 있던 협객이 듣고, 진실을 알게 된 협객은 그날 밤 다시 돌아가 방덕 부부를 죽이고 목을 베어 가져온다.
11. 이면이 협객의 성명을 물으니 이름은 알 필요 없다 하며 자신을 상하의사라 하고 사라진다. 이후 사람들이 그 협객을 찾아가 보았으나 없었다.
12. 고향에 돌아온 이면은 관직이 회복되어 이후 벼슬이 연국공에 이르고, 왕대와 노신도 직위가 높아지고 가산이 풍족해졌다.

〈牀下俠客傳〉의 전체 서술은 액자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李汧公窮邸遇俠客〉에는 없는 서사가 액자 틀의 형식으로 들어간 것인데, 여기의 등장인물은 갈천 민 선생과 두 여인이다. 즉 액자 틀에 해당하는 이야기로 갈천 민 선생

의 서술이 제시되고, 두 여인의 사연이 대화로 서술되다 갈천 민 선생이<sup>16)</sup> 소개하는 액자 내의 이야기로 〈李汎公窮邸遇俠客〉 내용이 이어진다. 서사 단락을 중심으로 정리한 주요 내용을 보면 〈牀下俠客傳〉과 〈李汎公窮邸遇俠客〉의 대략적인 서사는 비슷하지만, 1단락은 〈牀下俠客傳〉에만 있는 내용이다.

2-12단락의 서사는 〈李汎公窮邸遇俠客〉 전체 서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牀下俠客傳〉과 대략적으로 거의 일치한다. 그 중 좀 큰 차이를 보이는 부분으로 11과 12단락을 들 수 있는데, 〈牀下俠客傳〉이 〈李汎公窮邸遇俠客〉보다 서술이 훨씬 더 소략한 편이어서 분량상의 차이는 있으나<sup>17)</sup> 대체적인 내용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면, 〈牀下俠客傳〉은 〈李汎公窮邸遇俠客〉을 액자 내 서사로 구성하면서 액자 틀에 해당하는 서술을 지어 붙였다 할 수 있다. 〈牀下俠客傳〉의 액자 내 서사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야기(story) 차원에서 〈李汎公窮邸遇俠客〉과 거의 동일하다. 이 부분의 등장인물은 방덕, 폐씨, 이면, 왕대, 지성, 협객 등이다.

〈牀下俠客傳〉에 새롭게 구성된 이야기 틀로서의 액자 부분은 〈李汎公窮邸遇俠客〉에는 없는 번역자의 창작이기에 번역 의도와 주제의식을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갈현 민 선성이 위연장탄하고 홀노 우어 왈 권문지가의 연옹져치하고 협견텀소하고 샤름들을 웃지 말디여라 졸졸흔 인성이 명니 의속이 더워 일즈반급이라도 어더붓들면 지원이 흡족하고 집의 도라와 쳐즈의게 호괴를 부리며 의괴가 양양하니 가속이 장부가 개 도야지갓치 샤름의괴 꼬리치며(〈牀〉<sup>18)</sup> 1앞)

위의 인용 부분은 〈牀下俠客傳〉의 시작 부분으로 갈천 민 선생이 세상 사람들

16) '갈천 민 선생'은 허구적 인물로 판단된다. '갈천'은 강원도 혹은 경상도 지역의 이름이거나 임훈(1500~1584), 김희주(1760~1830)의 호로 겹친다. 지역명으로 보면 갈천이라는 곳에 사는 민 선생을 의미할 것이다. 임훈이나 김희주를 치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牀下俠客傳〉에서는 민 선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牀下俠客傳〉과 관련될 여지나 여타의 협객 이야기와의 관련성이 없는 인물로 보인다.

17) 이러한 분량 차이는 번역 과정에서 풀어 쓴 정도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번역자가 강조하는 부분이 달라진 데 따른 것이기도 하다고 판단된다.

18) 편의상 인용문에서 〈牀下俠客傳〉은 〈牀〉으로, 〈李汎公窮邸遇俠客〉의 번역본 〈李汎公記〉는 〈李〉로 표기하기로 한다.

이 제대로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한탄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서도 권세 있는 사람들에게 아첨하는 사람들을 비웃지 말라 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개나 돼지 같은 동물이 꼬리치는 모양으로 그린다. 이런 서두는 이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을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비판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의도로 읽을 수 있다. 여기에 이어 이웃집의 두 여인이 한담하며 지내는 상황이 서술되는데, 여기서 갈천 민 선생은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사를 진행하는 역할을 한다.

갈현 민 션성 이웃의 냥개 녀인이 세집의 드러는대 두 녀인이 각각 년노 낙척호여 간다다호노라 우연이 천니 상봉으로도 샤름이 한 집의 세를 드러 미양 심심호여 갈현 민 션성 집의 왕내 한담호눈지라(〈牀〉 1뒤-2앞)

그런데 이 두 여인은 삶의 내력으로 볼 때, 갈천 민 선생이 한탄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측면에서 나을 것이 없어 보인다. 서두에 언급된 아첨하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이 남성의 삶일 것이기에 이 두 여인의 이야기는 여성의 삶을 제시하는 방편이 된다 할 수 있다. 이 여인들은 갈천 민 선생 집에 왕래하며 한담한다 하였는데, 그 대화의 주된 내용은 각자 서로의 남편이 더 나은 것 같다고 부러워하는 것으로 진행된다.

냥인이 상봉호여 셔로 평성의 디낸 바를 갈현 민션성 집의셔 한담홀식 한 여인  
왈 나는 장부가 의용이 남동일식이요 문장은 반마를 짜르고 헝실은 노남지요 지산은  
도쥬공을 부려이 넉이지 아니호더 너심 둉의는 일정 시른 마음이 잇셔 성니별호고  
나왓노라 그 한 녀인이 듯고 경니 월 이런 난득지장부를 무어서 미흡호여 빠반호엿  
난고 (中략) 기 여인이 츄 여인의 말을 듯고 길게 탄식호고 손뼉쳐 갈오더 그더 장  
부의 위인이 곳 너 소원호는 남즈라 장부가 의용이 출둥호여 무엇호며 문장명필 무  
엇호여 강명호여 무엇호리요 너 말만 잘 드려 쥬고 호쟈는대로 호면 녀인의 팔즈는  
만승년즈 웃총이니 너 마음 너 헹위더로 못호고 평성 억미여 디니면셔 곤관의 일을  
한 가지도 못부리니 감옥 죄인갓치 성불여스라 인물 출등도 뿔더 업고 문장 명필도  
뿔더 업고 헹실 놓흔 것도 뿔더 업고 지산 풍족한 것도 뿔더 업느니 우리 냥인이 장  
부를 밋고아 맛나 드면 피초의 소원 성취 되엿을 거술(〈牀〉 2앞-3뒤)

갈천 민 선생 집에서 나눈 두 여인의 대화에 나타난 인생 이야기의 주된 내용

은 자신들의 남편에 대한 것이다. 한 여인은 남편이 외모도 출중하고 문장도 뛰어났으며 재산도 많은 사람이었음에도 자신이 싫어하는 마음을 가져 이별했다 한다. 이에 대해 다른 한 여인이 말하기를 자신의 남편은 외모도 별로이고 문장도 별로 뛰어나지 못한데다 재산은 겨우 의식을 해결할 만했는데 성격이 너무 유순하여 전혀 화를 내는 일도 없고 오로지 여인의 지휘대로 따르는 무능한 장부여서 재미가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한두 해 살다가 좀 강하고 출중한 남자를 얻어 보려고 도망했는데 결국은 소원하는 남자도 만나지 못하고 지금껏 살고 있다 한다. 이렇게 이 두 여인은 각자 자신의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했으며 그래서 이별하거나 도망하여 남편과 헤어졌는데, 새로운 남편을 얻지도 못하고 비슷한 처지의 여성을 만나 지난 이야기나 하는 처지이다. 그러면서 서로의 남편을 좋다하며 차라리 장부를 바꾸어 만났으면 각자 소원을 성취하였겠다고 한탄한다. 이렇게 여인들의 한담이 대화로 진행된 뒤 갈천 민 선생이 이 두 여인에게 훈계하는 말이 이어진다.

갈천 민 선성이 청파의 가가 디소 월 너희 두 녀인이 각각 소원으로 그 장부를 맷고아 맞나드면 만수여의 홀듯 혼나 불과 멋희의 도로 소원이 벗귀일 터이니 옛 사람이 허리의 십만관 채고 과학상양쥬호기를 소원혼나 급기 신선된 후의는 신선이 멋진 희의 도로혀 자미 업셔 불가불 인간의 나려와 벼슬도 흐고 녀식도 축심흐고 궁실 음식도 호강흐여야 마음의는 적지 아닐지니 너의들 비위를 엇지 맛초리요 이런 한담을 만쓰 치지 일변흐고 쓰고 녀인의 과거별별지스와 이상 맹낭흔 심장을 이로 과록 홀 길 업으나 기둥 한 속건이 잇시니(〈牀〉 3뒤-4앞)

갈천 민 선생의 훈계는 그 두 여인이 설사 남편을 바꾸어 만났다 하더라도 또 다시 소원이 바뀌어 서로를 부러워했을 것이라는 것이다. 사람 마음이 이러하니 일일이 비위 맞추기도 어렵다 하고, 여인들의 이야기들을 이루 기록할 길이 없지만 그 중의 한 사건이 있다 하면서 방덕과 이면의 이야기, 즉 〈李汎公窮邸遇俠客〉 서술로 연결한다.

이렇게 〈牀下俠客傳〉은 원래 〈李汎公窮邸遇俠客〉에는 없는 갈천 민 선생과 두 여인의 이야기가 새롭게 만들어져 들어가 액자 틀로 기능한다. 그래서 〈李汎公

窮邸遇俠客〉의 내용은 여인의 ‘기기별별’한 일과 ‘이상 맹랑’한 이야기의 하나로 제시되는 것이다. 이에 비해 〈李汧公記〉에서는 “이연공이 궁지에 빠져 협객(俠客)에게 구함을 받는 이야기”로 제목이 제시되고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이 세상 일은 바둑판 세계  
누가 이길지 그것은 위낙 모를 일  
하지만 거기에는 큰 길이 있어  
좋은 일 하면 선과(善果)를 얻네(〈李〉 171면)

〈李汧公記〉는 원전 〈李汧公窮邸遇俠客〉에 충실하게 번역한 것으로 이면의 이야기를 좋은 일 하면 좋은 결과를 얻는다는 인과응보, 바른 세상살이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제시한다. 그렇지만 〈牀下俠客傳〉은 서두에 〈李汧公窮邸遇俠客〉에는 없는 갈천 민 선생의 이야기를 삽입 시 대신에 구성하여 넣음으로써 주제의식을 달리하고 있다.

## 2) 3단계 반전 서사 내용 유지

이제 〈牀下俠客傳〉과 〈李汧公窮邸遇俠客〉이 공유하는 서사, 〈牀下俠客傳〉의 액자 속 이야기인 〈李汧公窮邸遇俠客〉의 서사에 주목해 보자. 이 서사는 특징적으로 반전이 반복되는 구조를 보여주어 흥미롭다. 앞서 이야기 차원의 공통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두 작품의 공통 서사에서는 방덕-이면-방덕으로 주요 인물이 옮겨지면서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공통적 서사 구조를 3단계의 반전 서사 과정으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여기서 3단계 반전 서사라 함은 서사 전개에서 이야기의 전환이 세 번 이루어지고, 1단계에서 2단계, 2단계에서 3단계로 연결되는 과정이 인물의 상황이 서로 반전된다는 의미이다. 단, 그 반전이 3단계에서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으면서 문제가 해결된다.

우선 첫 번째 단계는 방덕이 범죄자가 되어 이면을 만나는 부분까지를 상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로, 이면이 낙향하여 있다가 태수가 된 방덕을 만나고, 이면에게 선물을 하려던 방덕이 오히려 이면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게

되는 부분을 상정할 수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면을 죽이려던 방덕 부부가 자신들이 이면의 죽음을 사주했던 협객에게 죽임을 당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상정한 단계들을 연결하여 살펴보면,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방덕과 아내 페씨의 서사에서 이면의 서사로 진행되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이면에게서 방덕으로 서사의 초점이 옮아가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방덕과 페씨가 죽고 이면은 잘 사는 것으로 서사가 종결된다.

첫 번째 단계의 서사를 세부 서사 요소로 나누어 보면 1)방덕과 페씨의 가난한 삶, 2)방덕이 비를 피하다가 절에서 새 머리를 그리고, 이로 인해 강도들의 두목이 되는 과정, 3)방덕이 계획한 강도짓이 실패하여 감옥에 갇혀 죽을 위기에서 이면을 만나는 것 등이다. 여기서 중요한 인물 관계는 방덕과 그 아내 페씨, 그리고 방덕과 강도 일당들, 다음으로 감옥에 갇힌 방덕과 이면 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방덕과 페씨 부부의 가난은 비참할 정도로 심각하다.

년고가 삼십이 넘도록 낙격불우호여 가세 빈한호기 안희 피시가 침선 방격으로 겨오 슈일의 한번 밥을 맛보는지라 씩는 정히 심츄 천괴를 당호여 의복은 갈같이 뻐여지고 두상의 관은 반은 쑤러지고 바람이 불 냥이면 몸의 소름이 조빨갓치 듯는지라(<牀> 4앞)<sup>19)</sup>

이런 정도로 가난하니 방덕이 강도들의 두목이 되겠다는 결정이 상황적으로는 합당해 보이기는 한다. 방덕에게 강도들의 우두머리가 되어 달라는 제안이 죽음을 위협하는 정도여서 방덕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방덕의 가난한 정도로 볼 때에는 돈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해 보이기도 한다. 방덕은 의식주 문제도 그 아내의 바느질 등에 의존해야 하는 지경이니 그가 뛰쳐나가 해매고, 돈을 얻을 방도를 강도 집단에서 구하는 것이 그

19) 이 부분의 <李渢公記> 서술은 다음과 같다. 대체적으로 <牀下俠客傳>과 비슷하다.

삼십이 넘은 위장부였지만, 불우낙백하여 아무리 해도 발복이 되지 않아 아내 페씨가 길쌈을 해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정도입니다. 벌써 가을도 끝이라고 하는데, 머리에는 변함없이 찢어진 두건을 쓰고, 몸에는 다 낡은 여름 옷을 입고 있을 뿐, 그 여름 옷이란 것도 또한 갈가리 찢어진 것이어서 마치 풀로 만든 우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李> 171면).

럴 수밖에 없는 선택일 수 있는 것이다. 이는 방덕의 처가 매우 악독한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가) 원너 피시가 성정이 공조하고 눈치가 열시며 언어가 첨니호여 남이 열 말을 호면 한 두 마디로 칼날갓치 경파하고 미양 심둥의 성각호더 빅빅지 빈한흔더 쇠집와서 더욱 장부가 무릉호 위인으로 평성을 엊지 디넓고 흐고 쥬야로 부모가 혼인 잘못호 것만 원망호든초 방덕이가 의복 간청호는 말을 듯고 발연더로 흐여 낫을 불키고 과운을 도도와(〈牀〉 4뒤)

(나) 하지만 여편네는 천한 집 출신으로, 소견이 좁고 거기에 사나운 성품, 그 입심이 세기는 칼날보다 날카로와서 무엇을 막론하고, 저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말하면 저렇게 말하여 죽은 것이라 할지라도, 입만 놀리면 되살아날 수 있고, 산 것이라 할지라도 주둥이 하나로써 죽여버릴 수 있다는, 넉살 좋기로 유명한 여편네였습니다. 이 여편네가 방덕이 아무런 재간 없이 자기에게 의지해서 밥만 축낸다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남편을 들볶고 있었습니다. 방덕은 좋은 운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해볼 수도 없고 아래저래 여편네에게 짤짤매고 지내고 있는 중에, 점점 여편네의 엉덩이 밑에 깔려 들어가 버리는 것이었습니다.(〈李〉 172면)

(가), (나)에서 보듯이 두 작품 모두 패씨, 즉 방덕의 처에 대해 그 성격이 안 좋음을 서술하고 있다. 그 내용 역시 전체적으로 비슷한데, 말미의 서술이 (가)에서는 패씨가 ‘발연대로’하며, ‘낫을 붉히고’ 방덕을 대하는 것으로 나쁜 성정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하고 있다.

어쨌거나 부인의 압박에 의해서든, 강도들의 위협에 의해서든 방덕은 강도 두목이 되기로 하고, 실제 범죄에도 가담하게 된다. 그리고 모처럼 모의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방덕은 강도 집단의 두목으로서 죄인이 되어 간히게 되는 것이다. 이때 방덕이 이면의 궁리를 입게 된다. 이면은 방덕의 사정을 듣고 그가 단순히 강도짓이나 할 인물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가 감옥에서 도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가) 방덕이 눈물을 흘리며 우러 디 월 복은 본시 독서호든 사인으로 가세가 적 빈호여 작일 친척의 집으로 향호여 성도를 의논호려 출문호엿던이 등노의 디우를 맛나 운화스의 피우호다가 큰 식 목 업는 고림을 보고 목을 치여 고려져 강도들 의 끼 바 되여 작야의 왕원보의 집이 드러갓다가 잡히니이다(〈牀〉 12뒤-13앞)

(나) 그런데 방덕을 심문할 차례가 되니, 그는 형대 앞까지 기어오며 눈물을 흘리면서 진술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학문을 배워 본시부터 강도의 폐거리는 아니었습니다만, 가난해서 어찌 할 수가 없었으므로 어제 친척 집에 돈을 꾸러 갔습니다만, 그 때 비가 와서 운화사에 머물고 있는 동안, 그 폐거리들에게 속임을 당하여 연행되어 가서 협박으로 어찌할 수 없이 그 도당에 입당치 않을 수 없었습니다.”(〈李〉 179면)

(가)와 (나)는 방덕이 이면에게 자신의 사정을 호소하는 말이다. 사실 현실적으로 판단할 때, 이면이 방덕의 이러한 상황을 들었다 하더라도 굳이 그를 도와주어야 할 필연성은 없다. 방덕이 가난에 허덕이다 강도들의 협박에 못 이겨 함께 강도짓을 한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자신의 지위를 포기할 만큼이었는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면은 방덕이 몰래 도망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 일로 인해 방덕은 태수가 되고 이면은 할 일 없는 사람이 되어 만나는 다음 단계 서사로 진행된다.

두 번째 단계에서 방덕과 이면은 사회적 위치가 역전된 상태에서 만난다. 방덕은 하북지방의 태수가 되었지만 이면은 직위를 잃고 고향에 있으면서 울적하게 지내다 친구 안고경을 만나러 가던 길에 태수가 된 방덕을 만나게 된다. 이면은 그 성격대로 방덕에게 폐가 될까 하여 외면하지만, 오히려 방덕이 이면을 알아보고 강권하여 자신의 처소로 데려간다.

(가) 그러나 남의과 은혜 찢쳐다고 굿흐여 다른 체 훌 벼 아니라 흐고 왕덕다려 낫흘 돌녀 피흐라 흐고 즈괴도 길엽히 말을 나려 봄을 돌녀 은피흐려 흐던 츄 방덕이 말셔 아라보고 교즈의 급히 나려 불녀 월(〈牀〉 18앞)

(나) 그래 아는 체하고 물어보려고 생각하였으나, 그것도 안된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일 정말로 그 사람이라면 여기서 관리가 돼 있는 것을 알고 은혜를 받으려고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겠지. (중략) 물어보지 않는 편이 낫겠지.”

그리하여 왕태를 보고 말하지 말라고 타이르고 얼굴을 돌리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였습니다. 현령은 점점 가까이 와서 문득 본즉 이면이 등을 보이고 서서 있으며, 그 곁에는 왕태도 있기 때문에, 놀라고 또한 기뻐하여 급히 종자들을 정지시키고 말에서 뛰어내리더니 걸어오며 엎드려 절하고 말합니다.(〈李〉 183면)

(가), (나)에서 보듯, 서로의 역전된 상황에서 이면은 방덕을 오히려 피하고자 하고, 방덕이 적극적으로 아는 체 한다. 그리고 이 부분 서술에서 (가)보다는 (나)에서 방덕이 더욱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방덕과 이면이 서로 처지가 바뀌어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방덕은 반가워하였으며, 이면은 지난 시절 은혜를 베푼 데 대한 보상을 굳이 바라지 않고 좋은 마음을 나누는 관계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방덕이 이면에게 그 은혜의 보답 차원으로 재물을 주겠다고 마음을 먹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재물을 중시하는 방덕 아내의 반대 때문이었다. 그래서 방덕이 이면에게 은혜를 갚고자 시작한 생각이 결국에는 이면을 죽이고자 하는 계획으로 바뀌게 된다.

(가) 訾시 성각진터 공연이 몇 만금 자산을 니면의괴 허비호는 거시 살점을 벼혀 난는 듯 방덕의 쥬의를 살펴보니 단정하고 오류 빅 필을 주고 말지라 금시의 한 계획을 성각하고 방덕을 향하여 앗가 분노호든 고식을 다 거두고 곳쳐 우음을 씩고 월 (중략) 네로브터 큰 은혜는 갑디 못한다 혼니 오늘 밤의 아무도 모로게 두 사람을 죽여 업시 혼여 다시 마음의 거릿껴 혼는 거시 업시 혼는 거시 죠치 아니 낫가(〈牀〉 23뒤- 24앞)

(나) 패씨는 지아비가 어디까지나 그만한 선물을 하려는 것을 보자, 목이 잘리는 것보다 더 괴롭고 창자가 뒤틀리는 것같은 생각이었으나, 문득 나쁜 생각을 일으켜서 글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그만한 일에 결단을 못 한다면 아무래도 훌륭한 관리는 되기 어렵겠군요. 제가 손쉬운 좋은 방법을 생각해 냈어요. 한번 힘을 들이기만 하면 뒤로는 언제나 편안하겠거든요.”

방덕은 그 얘기에 마음이 이끌리어 빨리 묻습니다.

“어떤 방법인데?”

“옛날부터 말해 오지 않아요. 큰 은혜는 갚지 않는다고. 오늘밤, 틈을 봐서 죽여 버린다면 아주 깨끗할 게 아녜요.”(〈李〉 189면)

(가), (나)에서 보듯, 패씨는 방덕에게 이면 일행을 아무도 모르게 죽여 없애 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나)보다는 (가)에서 패씨의 나쁜 생각이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표정을 바꾸어 말하는 모습을 통해 더욱 악하게 그려지고 있다. 패씨가 선물로 은혜를 갚는 것보다 이면을 죽이는 것이 낫다고 방덕을 설득하는 근거는 이면이 도리어 자신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걱정

이다. 즉 방덕의 과거 일이 이면으로 인해 들추어질 것이라는 우려이다. 방덕의 아내가 부추기는 쓸데없는 걱정이 결국은 이면을 죽이려는 계획으로 구체화되면서 방덕은 이면을 죽일 방도를 찾게 된다. 이때 노신이 방덕과 패씨의 계획을 듣고 이면을 도와 함께 도망한다.

그리고 3단계 서사로 들어가 방덕이 계획한 이면의 죽음에 반전이 일어난다. 방덕은 도망간 이면과 노신 일행을 죽이기 위해 협객을 찾아 거짓 이유를 둘러 대고 이면의 죽음을 사주한다. 방덕이 둘러댄 거짓 사실을 듣고 협객은 이면을 죽이려 갔지만, 이면이 도착하기 전 이미 침상 밑에 숨어 있던 협객이 이면 일행의 이야기를 듣고 진실을 알게 된다. 이 일의 진상을 알게 된 협객은 이면을 죽이는 대신 방덕에게로 다시 돌아가 방덕과 그 아내를 죽이고 그 머리 두 개를 들고 이면 앞에 나타난다.

(가) 이 칼을 집의 끗고 왈 너가 상하의 숨어 그더의 말을 몬쳐 듯지 아니호더면 하마 어진 딕인을 상호고 무죄흔 두 인명을 살히흘 번 호였다 흐고 노괴가 등등 흐여 방덕의 흐든 말을 일장을 정흐고 왈 이런 편하의 용납지 못흘 남녀는 잠시 목숨을 봇쳐 둘 수 업스니 공은 나오기를 기다리라 흐고 문을 열고 쫓의 나셔더니 몸을 훌격 소스 공동으로 향흐눈더 다만 한 줄 금광이 셔복으로 벗치고 검객이 간더 업눈지라 니면 제인이 경아흐고 경신이 황흘흐여 등잔을 도도고 안잣더라(〈牀〉 36뒤-37앞)

(나) 그런데 그 때 마침 침대 밑에서 들연히 한 사람의 큰 사나이가 튀어 나왔습니다. 몸을 완전히 단속하여 손엔 단도를 가지고 위풍도 늄름하며 살기가 충만해 있었습니다. (중략) “조용히 하시오. 나는 의사로서 일찍부터 의분을 품고 이 세상의 배은망덕하는 무리들을 죽이는 것으로 신조를 삼아 왔소. 아까 방덕이 거짓 말을 해서 당신이 그를 모함해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한다 하고 나에게 척살할 것을 부탁해 왔습니다. 한데 그놈이야말로 배은망덕하는 놈인 줄이야. 당신께서 사정을 말씀하기를 잘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던들 위험스럽게도 당신을 잘못 알고 죽일 뻔하였습니다 그려.” (중략) “천만의 말씀, 원 천만의 말씀을. 저는 잠깐 나갔다가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하고 뜰로 나가 지붕 위로 올라가더니 몸을 한곳에 살짝 붙이더니 나는 새와 같은 빠른 속도로 훌연히 보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를 주종은 놀라 혀를 내둘렀습니다. 그래 떠날 수도 없고… 또 다시 온다는 것은 그것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시무시해서 잠잘 수도 없고 술과 요리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대목엔 아래와 같은 시가 있습니다.

숨을 헐떡거리며 도망쳐 가니  
 불쑥 솟아나는 냉도 떠는 칼날이여  
 하지만 모든 사실 다 듣고 나니  
 이제야 변하네 칼쓸 장소가(〈李〉 201-202면)

(가)와 (나) 부분은 서사 전개상 〈牀下俠客傳〉과 〈李汎公窮邸遇俠客〉의 동일 부분이다. 서사의 내용은 동일하지만 그 서술과 표현의 방식이 다름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침상 아래 있던 검객이 이면을 죽이려고 왔다가 사실을 알게 되어 다시 방덕에게 다녀오겠다 하며 떠나는 내용인데, (가)에서는 대화를 간략화하고 서술을 압축하고 있는 반면 (나)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장면화하여 대화를 부연하고 있다. 또한 시를 제시하여 칼 쓸 장소가 변화하였다고 핵심 서사 내용을 드러내고 있다.

이러한 반전의 서사에는 조력자와 문제 해결자가 교체 되는 것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 이를 주요 인물과 함께 등장하는 조력자에 해당한 인물과 적대자에 해당하는 인물이 병치되면서도 서로의 역할이 반전되는 구조가 펼쳐지는 것이다. 방덕이 아내 패씨로 인해 쥐는 괴로움은 강도 두목 제안자들이 해결하는가 하면, 방덕이 감옥에 갇혀 죽게 된 위기에는 이면이 구원자, 조력자로 기능한다. 낙향한 이면에게 은혜를 갚고자 하는 방덕은 처음에는 조력자의 위상이었으나 아내 패씨와의 갈등 조율 과정에서 이면을 죽이고자 하는 적대자로 변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방덕과 그 아내 패씨가 이면을 죽이려고 검객을 이용하였으나 그 검객은 죽일 대상을 이면에게서 방덕과 패씨로 옮겨 실행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한다.

### 3) 부녀자에 대한 훈계 강조

앞서 〈牀下俠客傳〉에 새롭게 들어간 액자 틀 구성에서 살펴보았듯이 원래 〈李汎公窮邸遇俠客〉에는 갈천 민 선생과 두 여인의 이야기가 없고, 인간 삶의 바른 도리를 보여 주는 예로 이면의 이야기가 서술되고 있다. 그런데 〈牀下俠客傳〉의 서두에는 두 여인에 대한 훈계의 연장 선상에서 이면의 이야기가 제시됨으로써 방덕과 그의 처 패씨가 저지른 악행이 강조된다. 다시 말해 저본인 〈李汎公窮邸

遇俠客〉에서는 모범적 삶의 예시로 이면의 삶이 강조되고 있다면, 〈牀下俠客傳〉에서는 반면교사로서 방덕과 방덕 처의 삶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서사의 결미에 단적으로 나타난다.

## (가) 후 사람이 방덕과 펴시를 탄식흐여 글 지어 왈

한처 간첩이 세상 뉴호니      한 독흔 안히와 간특흔 첨이 세상의 항상 잇스니  
 망신하필 우부인가              몸을 망호든 거슬 엊지 반드시 부인의 탓을 허리요  
 종면일시협스검이나              비록 한 씩 협객의 칼을 면흘지라도  
 소소던니는종불민니라              밝고 말근 하늘 이치는 마침니 업셔지지 아니는이라  
 이 글이 못된 부인마다 칼 맛는 거순 아니로더 필경 앙화는 가는더 잇는이라 말  
 이라(〈牀〉 40뒤-41앞)

## (나) 시를 하나 읊으면

은혜와 원수는 틀리는 것을  
 은혜를 원수로 갚는 못된 놈들을  
 의협의 검객이 나타나서  
 모든 불의를 없앴도다(〈李〉 205면)

(가)와 (나)에서 보듯이 서사를 종결하면서 덧붙인 서술이 이 두 작품의 다른 주제 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낸다. (가)에서는 독한 아내, 간특한 첨이 세상에 항상 있으니 부인 탓만 하지 말라 한다. (나)에서는 은혜를 원수로 갚는 못된 놈들을 검객이 없었다는 것을 칭송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세상의 바른 이치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가)는 아녀자의 잘못에 대해 환기함에 비해 (나)는 사람들의 잘못된 도리를 꾸짖는다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때 〈牀下俠客傳〉이나 〈李汧公窮邸遇俠客〉 모두 소설을 통한 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牀下俠客傳〉은 부녀자의 도리에 좀 더 특화된 의식을 보이고 있고, 〈李汧公窮邸遇俠客〉은 보편적 삶의 도리를 강조한다. 이는 한편으로 〈牀下俠客傳〉의 번역 목적에 대한 추론을 가능하게 한다.

〈牀下俠客傳〉이 〈李汧公窮邸遇俠客〉이나 번역본인 〈李汧公記〉와 주제 의식을 달리하게 된 배경은 〈牀下俠客傳〉이 윤백영 여사를 위해 궁할아버지인 윤용구가 번역한 것이라는 맥락에서 추측해 볼 수 있다. 〈李汧公記〉가 일반 대중 독자의

흥미를 충족시키기 위한 번역본이면서도 원전에 충실한 번역을 시도한 작품임에 비해 〈牀下俠客傳〉은 목표로 하는 독자가 윤백영이라는 여성이기에 액자 틀의 삽화나 결미를 달리하는 것이 더욱 적절한 번역일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본격적으로 살피지는 못했지만, 세부 서술 과정에서 〈牀下俠客傳〉은 원전에 비해 방덕 처 폐씨의 악행과 못된 심보를 강조하고 있어 이 역시 마찬가지 맥락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牀下俠客傳〉의 전체적 번역 양상으로 볼 때 원전의 삽입시는 모두 삭제하였음에도 말미에 이러한 시를 덧붙인 것이 특징적이기도 하다. 〈牀下俠客傳〉에서 원전의 삽입시는 제거되고 대화도 비교적 간략하게 처리되고 있는데, 서사가 종결된 부분에서는 이렇게 시를 삽입하여 주제 의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 4. 결론

이제까지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한글 필사본 〈牀下俠客傳〉에 대해 살펴보았다. 〈牀下俠客傳〉은 『금고기관』 소재 〈李汧公窮邸遇俠客〉의 번역본으로는 유일한 한글 필사본이자 왕가 소장본이었다는 특수성이 있다. 여타의 『금고기관』 번역본에는 없는 〈李汧公窮邸遇俠客〉이 어떻게 윤용구의 손에 의해 번역되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李汧公窮邸遇俠客〉이 갖고 있는 의협 서사의 매력이 작용하였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牀下俠客傳〉이 원전과 달리하는 부분이다.

〈牀下俠客傳〉은 〈李汧公窮邸遇俠客〉에는 없는 갈천 민 선생과 두 여인의 이야기로 액자를 만들어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술한 여자들이 겪는 다양하고 기구한 이야기 중의 하나로 〈李汧公窮邸遇俠客〉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번역의 변화는 〈牀下俠客傳〉의 예상 독자와 관련지어 볼 때 잘 이해된다. 번역자인 윤용구는 남성이기에 〈李汧公窮邸遇俠客〉의 의협 서사 자체가 흥미 있었겠지만, 이를 〈牀下俠客傳〉으로 번역할 때에는 독자인 윤백영 여사 나아가 여성 일반 독자를 고려하여 여인들의 이야기로 변화시켰다 할 수 있겠다.

특히 〈牀下俠客傳〉의 액자 틀 서술 방식이나 결미에 제시된 시의 주제 의식으로 볼 때 부녀자를 향한 교화 의식이 매우 강하다. 서두 부분의 갈천 민 선생과 두 여인이 나누는 대화는 신소설에서 볼 수 있는 대화체, 토론체 소설에서의 교술성을 연상하게 한다. 이는 〈牀下俠客傳〉이 만들어진 시기를 윤백영의 나이에 비추어 1913년경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는 점과 관련지어 볼 때 신소설의 영향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이해조의 『枯木花』는 1907년 6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帝國新聞』에 連載한 장편소설이기에 윤용구가 〈牀下俠客傳〉을 짓기 전에 이미 이해조의 『枯木花』를 읽었을 가능성도 있어서 번역의 계기나 방향을 관련지을 수 있다.

〈牀下俠客傳〉과 〈李渢公窮邸遇俠客〉이 공유하고 있는 서사적 재미는 의협 이야기라는 것뿐만 아니라 방덕과 그의 처, 그리고 이면이 겪는 인생 반전 서사에서도 찾을 수 있다. 〈牀下俠客傳〉이나 〈李渢公窮邸遇俠客〉은 동일하게 사람의 도리와 이치를 강조하면서도 부녀자와 일반 대중이라는 조금 다른 독자층을 겨냥한 의식을 보인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속에는 반전에 반전이 거듭되고 속박과 도망, 해방이 반복되는 서사적 흥미가 내재해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중국 소설의 한국 유입이나 번역 수용이라는 거시적 관점과는 반대 방향에서 〈牀下俠客傳〉이라는 새로운 고전소설 자료의 개별성에 주목하여 시작되었다. 그리고 〈李渢公窮邸遇俠客〉이 〈李渢公記〉로 만들어진 방식을 전면적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牀下俠客傳〉에 대한 검토가 우선하기에 〈牀下俠客傳〉의 소개와 분석에 집중하였음을 밝히는 바이다.

주제어 : 상하협객전, 이견공궁저우협객, 금고기관, 번역소설, 고전소설

투고일(2017. 10. 16), 심사시작일(2017. 10. 23), 심사완료일(2017. 11. 9)

〈Abstract〉

Research of *Sanghahyupgagjeon*, New Text of  
Korean Classical novel

Seo Yu Kyung \*

This research introduces concrete facts of manuscript, *Sanghahyupgagjeon* which belongs to the National Hangul Museum as well as translation copy of *Yeegyeongonggungjeouhyupgag* which is the subject matter of *Geumgogigwan*. *Yeegyeongonggungjeouhyupgag* was translated and published in 1963 for the first time into *Yeegyeongonggi* of Fully translated *Geumgogigwan* which is a copy of *Jungum*. Therefore, it is meaningful that *Sanghahyupgagjeon* is the first Hangul manuscript of *Yeegyeongonggungjeouhyupgag*.

*Sanghahyupgagjeon* was written by YoonYongGu and was translated when YoonBaekYoung was 25-26 year old age. In the light of this, *Sanghahyupgagjeon* could be written in 1913. It is noticeable for *Sanghahyupgagjeon* that the translator added new contents and changed narration from the original text.

The translation patterns of *Sanghahyupgagjeon* are below; 1) a story frame of new narration, 2) reverse narration in three stages between *Sanghahyupgagjeon* and *Yeegyeongonggungjeouhyupgag*, 3) emphasis on discipline of women. The most remarkable point of *Sanghahyupgagjeon* is to consist of new narration as a story frame. Furthermore, *Sanghahyupgagjeon* highlight attitudes towards life as women because *Sanghahyupgagjeon* targeted at women and changed the story.

**Key Words :** *Sanghahyupgagjeon*, *Yeegyeongonggungjeouhyupgag*, *Geumgogigwan*, translated novel, Korean classical novel

---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University of Seoul.